M
718
73947
=2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島 方言의 聽者 待遇法 硏究

— ㅎ여체 어미를 중심으로 —

指導敎授 金 洪 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9755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高 昌 根

1993年 2月

濟州島 方言의 聽者 待遇法 硏究

— ᄒᆞ여체 어미를 중심으로 —

指導敎授 金 洪 植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提出者 高 昌 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高昌根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抄 錄〉

濟州島 方言의 聽者 待遇法 硏究

— ᄒᆞ여체 어미를 중심으로

高 昌 根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指導敎授 金 洪 植

이 논문은 제주도 방언의 청자 대우법에 대하여 'ᄒᆞ여체 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의 청자 대우법은 'ᄒᆞ라체', 'ᄒᆞ여체', 'ᄒᆞᆸ서체'의 3등분 체계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ᄒᆞ여체를 비격식체로 분류하여, 격식체로서 ᄒᆞ라체와 ᄒᆞᆸ서체의 대립, 비격식체로서 ᄒᆞ여체와 ᄒᆞ여마씀체의 대립으로 체계화하였다.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 ᄒᆞ라체 의문법 어미는 '-이', '-아', '-에'의 모음 대립에 의해서 각각 설명·판정·확인 의문 어미로 나뉜다.

(2) ᄒᆞ라체 어미에는 이미 '하대' 의향이 포함되어, '하대+존대'의 모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높임의 첨사 '마씀'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3) ᄒᆞᆸ서체 어미에는 첨사 '마씀' 통합이 불가능하나, 최근 '-ㅂ주마씀' 형식으로 빈번히 발화되고 있다. 그것은 ᄒᆞ여체 형태소 '-주'가 원래 접속 어미로서 마씀 통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ㅂ-'은 나중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ᄒᆞᆸ네까마씀'과 같은 발화도 보이나 흔치는 않다.

(4) 모든 ᄒᆞ여체 어미에는 '마씀' 통합이 가능한데, 그것은 ᄒᆞ여체 어미로 불려지고 있는 것들이 첫째, 접속 어미에서 온 발화 종결 형태이거나, 둘째, 원래 간접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용된 의문문의 어미로서 후행 발화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추측·의도 표현·가능성에 대한 의심 등의 형태소 '-카', '-코'일 경우도 '마씀' 통합이 가능하다.

(5) 계사 뒤의 '-라'는 '마씀' 통합이 가능한데 이것은 중세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접속 어미 '-어'의 이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ᄒᆞ라체의 '-라'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6) ᄒᆞ여체의 발화 종결 형태소 '-주'는 표준어의 '-지'와 기능이 같은데, 이것은 중세어의 접속 어미 '-디빙'에서 온 것이다.

끝으로, 제주도 방언의 청자 대우법의 등분은, 격식체로서 ᄒᆞ라체와 ᄒᆞᄇᆞ서체의 대립(청자 대우 형태소 '-ㅂ-', '-우-'의 유무에 의한 대립), 비격식체로서 ᄒᆞ여체와 'ᄒᆞ여마씀체'의 대립(청자 대우 형태소 '-마씀'의 유무에 의한 대립)으로 체계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目　　次

抄 錄

1. 序 論 …… 1

1.1. 硏究 目的 …… 1

2.1. 待遇法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 …… 2

2. 聽者 待遇法의 等分 …… 7

3. 濟州島 方言의 聽者待遇法 …… 9

3.1. ᄒᆞ라체와 ᄒᆞᆸ서체 …… 10

3.1.1. ᄒᆞ라체 …… 10

3.1.1.1. ᄒᆞ라체의 平敍法 語尾 …… 10

3.1.1.2. ᄒᆞ라체의 疑問法 語尾 …… 12

3.1.1.3. ᄒᆞ라체의 命令法·請誘法 語尾 …… 15

3.1.2. ᄒᆞᆸ서체 …… 16

3.1.2.1. '-우다', '-우까' …… 16

3.1.2.2. '-ㅂ네다', '-ㅂ네까', '-ㅂ데다', '-ㅂ데까' …… 17

3.1.2.3. '-ㅂ서', '-ㅂ주' …… 18

3.2. ᄒᆞ여체와 ᄒᆞ여마씀체 …… 18

3.2.1.1. ᄒᆞ여체의 平敍法 形態素 '-네', '-ㄴ게', '-라' …… 20

3.2.1.2. ᄒᆞ여체의 疑問法 形態素 '-ㄴ고', '-ㄴ가' …… 21

3.2.1.3. ᄒᆞ여체의 疑問法 形態素 '-카', '-코' …… 23

3.2.1.4. ᄒᆞ여체의 平敍·疑問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안/-언' … 24

3.2.1.5. ᄒᆞ여체의 平敍·疑問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젠' …… 24

3.2.1.6. ᄒᆞ여체의 平敍·疑問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엔' …… 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2.1.7. ᄒᆞ여체의 平敍·請誘·命令法에 두르 쓰이는 形態素
'-아/-어' 25
3.2.1.8. ᄒᆞ여체의 平敍·請誘·命令法에 두르 쓰이는 形態素 '-주' 30
3.2.2. ᄒᆞ여마씀체 35

4. 結 論 40

참고문헌 41
Abstract 4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序 論

1.1. 硏究 目的

1.1.1. 國語의 待遇法이란, 話者가 聽者 또는 話中 人物과의 相對的 관계, 즉 年齡의 上下, 社會的 地位의 等差, 血緣的 關係, 또는 親疎 關係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법을 말한다.[1]

어느 言語共同體에 있어서도 그 言衆들 相互間에는 언제나 이러한 縱的 階層이나 橫的 親疎 關係가 存在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언어에 반영되어 言語의 尊卑 현상을 發生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어에 投影되는 실태는 언어에 따라 성격을 전혀 달리하여 그 통일성을 찾아 보기 힘들다. 어떤 언어에서는 精緻하게 나타나며 어떤 언어에서는 微少하게 작용한다.[2]

國語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층과 친소 관계를 감안하여 話者는 언제나 尊卑 意圖를 머금고 發話를 해야 하고, 또한 話者의 발화상에는 언제나 그러한 관계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국어의 모든 언어 표현에는 年齡的·社會的·血緣的 階層, 親疎 등에서 오는 상대적 대인관계가 그대로 反射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국어의 중요한 특질의 하나로서 과거로부터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아직 그 많은 연구의 결과가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再考의 여지가 많다.

1.1.2. 한 방언의 대우법 연구는 세 가지 면에서 意義가 있다. 첫째는 대우법에 나타난 각 방언의 특징에 의해 方言 區劃을 設定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고, 둘째는 방언의 대우법 연구가 국어 대우법의 本質 理解와 보다 완벽한 體系化에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이며, 셋째는 한 방언의 대우법을 연구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의 社會的, 階層的 構造를 알 수 있으리라는 기

1) 대우법은 달리 경어법, 높임법, 존대법, 존비법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왔다.

2) 成耆徹(1984), 國語 待遇法 硏究(金鍾塤 編著, 國語 敬語法 硏究), p. 407.

대이다.[3]

본 연구는 濟州島 方言의 聽者 待遇法에 대한 考察을 통해[4] 그 특징을 밝혀내고 等分을 體系化하여, 보다 완벽한 國語 待遇法 體系化에 도움을 주고, 제주도의 지역사회적, 계층적 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3. 본 연구에서 든 발화의 예들은,기존의 방언 자료와 연구 논문들[5]을 중심으로 拔萃한 것과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들이다.

1.2. 待遇法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

국어의 대우법은 달리 敬語法, 尊待法, 尊卑法, 기타 여러 가지로 명명되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수년 동안, 국어의 대우법은 매우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중심되는 연구에 대하여 유형별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1.2.1. 대우 체계를 '높임'에만 한정시켜 이분법으로 하위 분류한 것으로는, 최현배(1929)[6] ,이상복(1976)[7]이 있으며, 二元的 體系이면서 용어를

---

3) 이익섭(1974), 영동 방언의 경어법 연구(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제6집-인문·사회과학편), pp.49~67 참조.

4) 주체 대우법과 기타 대우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5) 제주도 방언 자료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정연사
박용후(1960) 제주 방언 연구, 동원사
진성기(1976) 남국의 민담, 형설 출판사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용준·김영돈(1981)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용준·김영돈(1983) 한국구비문학대계9-3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최현배(1929), 우리말본, 정음사, p.777.
말의 높임 ┌ 동작, 성질의 임자인 월의 임자를 높임(주체 대우에 해당)
└ 말을 듣는 사람을 높임(청자 대우에 해당)

7) 이상복(1976), '요'에 관한 연구, 연세어문학 7,8(연세대)

'尊敬(尊待)法'과 '謙讓法'으로 나눈 것으로 김형규(1947)[8], 서병국(1966) 등이 있는데, 김형규(1947)에서는 "'-시-'는 직접 웃사람의 행동을 높이는 말이 되고 '-ㅂ니-', '-습니-'는 이 쪽의 행동을 낮추어 상대자에게 敬意를 표하는 어사이기에, 앞의 것을 '尊敬辭', 뒤의 것을 '謙讓辭'라 부른다." 하였다.

1.2.2. '主體 尊待法', '客體 尊待法', 그리고 '相對 尊待法'으로 三元的 분류법을 취하며 순수 문법적인 면으로 연구를 시도한 것에는, 허 웅(1954,1975,1989)[9], 신창순(1962), 유구상(1971) 등이 있다. 허 웅에서는 체계 전체를 포괄하는 술어로 '존대법(높임법)'을 취하고, 그 하위 체계를 화제상의 인물과 청자로 우선 분류하였다. 또한, 이숭녕(1964), 조규범(1981), 안병희(1982)에서는 '존경법(주체존대)', '겸양법(주체겸양, 자체겸양)', '공손법(상대존대)'으로 하위 분류하여 허 웅에서의 '객체존대법'을 '겸양'으로 바꾸어 술어를 규정하였다.[10]

8) 김형규(1947), 경양사의 연구, 한글 99, 한글학회, p. 16.
그러나 그의 국어 경어법 연구(1975)에서는 종전의 이항 대립 체계로 파악하던 태도를 지양하여, 어휘에 의하여 대립되는 존대어와 겸양어, 그리고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대인관계, 즉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고하 관계에서 어미 변화로 표시되는 공대법의 삼항 대립 체계로 파악하는 변모를 보이고 있다.

경어법 ┬ 어휘법에 나타나는 경어법 ┬ 직접 존대 — 존대법
　　└ 간접 존대 — 겸양법
　　└ 어미활용에 나타나는 경어법 ——— 공대법

9) 허 웅(1954), 서기 5세기의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성대 논문집 1호

존대법 ┬ 말(글)에 등장된 인물(사물)에 관한 것 ┬ 주체 — 주체 존대
　　└ 객체 — 객체 존대
　　└ 말할이와 들을이에 관한 것 — 상대 존대

이후(1961, 1962, 1963)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는 그의 종래의 견해를 변호하고 거듭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1975)에서 '존대법'이 '높임법'으로 수정되어, 종전의 '주체 존대법', '객체 존대법', '상대 존대법'을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다시 (1989)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들을이 높임법'으로 수정되었다.

10) 삼원적인 분류법을 취하되 그 용어를 '주체 경어법', '객체 경어법', '상대 경어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익섭(1973), 김영태(1977) 등이 있다.

1.2.3. '대우'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국어의 높낮이 관계를 문법적, 사회언어학적 양면으로 시도 연구한 것으로, 성기철(1970), 서정수(1972), 고영근(1974) 등이 있다. 성기철에서는, 대우법을 둘로 나누어, 담화 또는 화용론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대우법을 '광의의 대우법'이라 하고, 단위 문장에 실현되는 대우의 규칙을 '협의의 대우법'이라 하여, 사회언어학적인 면과 문장 구조 속에 나타나는 대우 체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서정수에서는, 현대 국어의 대우법 체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그 범주를 설명하고 세분하여 논술하고 있다. 곧, 대우법을 '청자 대우법'과 '제삼자 대우법'으로 일차 분류한 후, '제삼자 대우법'을 다시 세분하여 '주체 대우법'과 '기타 대우법'으로 나누었다. 또 '기타 대우법'은 '목적격 인물 대우', '처소격 대우', 그리고 '간접 대우'로 세분화하였다.

1.2.4. 사회 언어학적인 기술 및 실태 조사에 특히 중점을 두고 대우법을 연구한 것에는, 황적륜(1976), 박영순(1976) 등이 있는데, 황적륜(1976.117)에서는, '존대'와 '공손'을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 "존비대는 사회율이 화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화계와 '-시-' 등 대우 표현으로 나타나고, 공손은 화자의 의도로서 존비대의 모든 화계에 나타날 수 있으며 법(modal) 표현 등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높낮이 관계를 사회언어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1.2.5. 특별히 '-시-'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에는, 장석진(1973), 박양규(1975), 임홍빈(1976) 등이 있다. 박양규에서는, '-시-'의 '호응설'과 '존대설'을 설명하면서, 존칭 체언의 무정화(無情化)와 관련되는 공기제약(共起制約), 곧 " '-시-'의 분포는 주술 관계보다는 유·무정 구분에 따른 어사간의 공기제약에 의하여 기술되어진다."고 하였다. 임홍빈에서는 '-시-'를 "문장 전체를 받고 있는 상위문(上位文)의 술어"라 하여, '-시-'가 문장 구조 속에서 대우절차를 밟는 것은 사회적 관습과 결부된 2차적 기능이라고 하였다.

1.2.6. 이 밖에, 대우법 분류의 독자성을 보여 대우법 구조에 관한 공

시적인 것만을 다룸으로써 새로이 방법론을 개척한 김석득(1968)이 있다. 곧 대우법을 '법 가진 통사 구조(modal syntax)'와 '법 안 가진 통사 구조(non-modal syntax)'로 보고 "'법 가진 통사 구조'의 성립은 '법 안 가진 통사 구조 + 법 형태'로, '법 형태'는 '듣는이(청자)'의 존비 관계를 나타내며, '법 안 가진 통사 구조'는 '주어'에 따라 '말 들을이' 또는 '제삼자'의 존비를 나타낸다."(1977.42)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존대 ─┬─ 상대존대 ─┬─ 존대 ── 존대법
　　│　　└─ 겸양 ── 겸양법(자기겸양)
　　└─ 삼자존대 ─┬─ 겸양 ── 더 낮춤법(삼자겸양)
　　└─ 존대 ─┬─ 존대법
　　└─ 더 높임법(삼자높임)

기존 연구의 개관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대우법의 기존 연구 개관>[1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구자	연대	용어	특징
유길준	1909	존경	최초의 대우법 체계에 대한 언급
최현배	1929	말의 높임	이원적 체계의 분류법
김형규	1947	존경(존대)법	
서병국	1966		
마성식	1972	겸양법	

11) 김혜숙(1991), 현대국어의 대우법 체계 연구(현대국어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pp. 74~75.

허 웅	1954	주체 존대	삼원적 체계의 분류법	
신창순	1962	객체 존대	순수 문법적인 면의 연구 시도	
유구상	1971	상대 존대		
성기철	1970	대우법	사회언어학적 문법적 양면의 연구 시도	광의, 협의 대우법
서정수	1972			체계 세분 서술
고영근	1974		특히 청자 대우법에 중심을 두고 새로운 방법면을 개척	
김종택	1981			
최재희	1982		주체 대우법, 객체 대우법, 청자 대우법	
青山秀夫	1970	경어법	사회언어학적인 이론을 적용하여 기술 및 실태 조사에 중점	
박영순	1976			
황적륜	1976	대우법		
장석진	1973	존대법	'-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박양규	1975			
임홍빈	1976	경어법		
김석득	1968	존대법	법(modal)구조를 통해 방법론 개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聽者 待遇法의 等分

청자 대우법[12]이란, '말을 듣는이'와의 상대적 관계에 맞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청자 대우법은 달리 '공손법', '겸손법', '상대존대법', '청자존대법' 등으로 불려 왔으나 여기서는 '청자 대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청자 대우법'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

2.1. 제 1 유형

이는 단순히 말할이가 들을이를 높여 말하는가 낮추어 말하는가의 높낮이 관계에 의하여 청자 대우 등급을 구분한 견해들인데, 이는 청자 대우 등급을 몇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청자 대우 등급을, 이른바 반말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로 갈라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최현배(1965)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주낮춤(해라)
예사낮춤(하게)
예사높임(하오)
아주높임(합쇼)
반말(등외)

그리고 허웅(1969), 김석득(1968), 이길록(1978)의 등급 구분도 최현배의 경우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반말을 예사낮춤(하게)과 예사높임(하오)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 점이 최현배(1965)에서 반말을 등외라 하여 '해라'와 '하게', '하게'와 '하오'의 중간으로 본 것과 다르다. 김완

12) 서정수(1972),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권 2호(서울대어학연구소), pp. 78~81.
여기서 '상대'란 말이 반드시 '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모호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겸손법이니 공손법이니 하는 말은 경어법, 존경법, 공대법 따위 용어와 혼동하기 쉬움을 지적했다.

13) 이상복(1984), 국어의 상대 존대법 연구, 배달말 9, 배달말학회, pp. 1~7 참조.

진 · 이병근(1983)도 이에 속하는데, 반말을 대체로 해라체와 하게체에 맞먹어 쓰인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반말을 포함하여 청자 대우 등급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 예로서 이희승(1971)의 등급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하소서체
반말

김민수(1971)의 등급 구분도 이희승(1971)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김민수(1971)에서는 반말을 독립된 하나의 등급(해라와 하게의 중간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희승(1971)에서 반말을 '해라도 하게도 하오도 아니고 말을 어물어물하여 끝을 아물리지 않는 말'이라 하여 독립된 한 등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

한편, 성기철(1979)에서는 '-요'의 쓰임에 주목하여 아주높임(하십시오), 예사높임(하오), 예사낮춤(하게), 아주낮춤(해라), 두루높임(해요), 두루낮춤(해)의 모두 여섯 가지로 가르고,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은 각각 높임과 낮춤의 등외로, 높임 일반과 낮춤 일반에 두루 통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익섭 · 임홍빈(1983)도 성기철(1979)과 같이 해라체, 반말체, 하게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반말체와 해요체가 독립된 등급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각각 해라체와 하게체, 하오체와 합쇼체의 중간 등급으로 처리한 점이 성기철(1979)과 다르다.

고영근(1974)에서는 해라,하게,하오,합쇼체의 4원적인 체계와, '요'통합 가능형과 '요'통합형의 2원적인 체계로 양분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색인데, '요'통합 가능형(반말)은 해라,하게 하오체와 혼용되거나 존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이고, '요'통합형(해요체)은 하오,합쇼체의 한 보충물로 기능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끝으로 위의 경우와 달리 정인승(1972)에서는 단순히 높임과 낮춤으로 이분하고 있고, 김종택(1981)에서는 평대와 존대, 그리고 존대는 다시 수상 존대와 수하 존대로 양분하고, 수상 존대는 '하오체', 수하 존대는 '하게체', 평대는 '해라체'로 대표되는 것으로 보았다.

2.2. 제 2 유형

제 2 유형은, 제 1 유형에서의 높낮이 관계와 아울러 격식, 비격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복합적으로 청자 대우 등급을 구분한 논의들이다. 황적륜(1976)을 보면 다음과 같다.

	formal	informal
level 1 (most deferential)	-(u/i)pnita	-(e)yo
level 2	-ó	
level 3	-ne	pan mal
level 4 (most condescening)	-ta	

서정수(1984)에서도 황적륜(1976)과 비슷한 가름을 하고 있는데, 해요체와 해체를 각각 존대 등급과 비존대 등급에 두루 쓰이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장석진(1973)에서는 plain, intimate, familiar, blunt, formal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앞의 네 등급을 비격식적(informal)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른바 해요체는 독자적인 등급을 이루지 못하고, 반말의 '-지'도 존비 등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박영순(1976)에서는 청자 대우 등급을 존대형, 준존대형, 친숙형, 평교형의 넷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격식체(존대형, 평교형)와 비격식체로 분류했는데, '하세요체'가 독자적인 등급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3. 濟州島 方言의 聽者 待遇法

지금까지의 제주도 방언 청자 대우법에 대한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이숭녕(1957)은 제주도 방언 청자 대우를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 등으로 4 등분하면서, 극존칭일 경우는 아마도 육지어의 영향일 것으로 보고 있다.

평칭	ᄒᆞ염쩌	ᄒᆞ염디아	ᄒᆞ자	ᄒᆞ라
중칭	ᄒᆞ염서	ᄒᆞ염서	ᄒᆞ주	ᄒᆞ십(부녀어)
존칭	ᄒᆞ염수다	ᄒᆞ염수까	홉주	홉써
극존칭			ᄒᆞ십주	ᄒᆞ십써

박용후(1960)도 아주낮춤, 예사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등 4 등분하면

서 '반말'은 표준말과 다름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표준어의 등분 체계에 대입하려는 성격이 짙어서 방언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평효(1974)는 ㅎ라체, ㅎ여체, 흡서체로 3 등분하고 있다.

ㅎ라체	감저	감다	가자	가라
ㅎ여체	감서	감서	가쥐	가
흡서체	감수다	감수과	감쥐	감서

그외 홍종림(1975), 김미경(1987) 등이 현평효(1974)의 견해를 따랐다.

필자는 제주도 방언 청자 대우의 그 등분을 함에 있어, 첨사[14] '-양'만이 통합될 수 있는 어미들에 대해서는 모두 흡서체로, 첨사 '-마씀', '-양'과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어미들에 대해서는 ㅎ여체로, 그 외의 어미들에 대해서는 ㅎ라체로 각각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첨사 '-마씀'이 ㅎ여체와만 통합이 가능하다는 데 착안하여, '-마씀'이 결합된 것을 'ㅎ여마씀체'라 하여 ㅎ여체와 ㅎ여마씀체를 비격식체로 분류하고, ㅎ라체와 흡서체를 격식체로 분류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1. ㅎ라체와 흡서체

3.1.1. ㅎ라체

이 말씨는 친밀도가 가장 강한 평교간이나 말할이 사이의 관계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에서 표준어와 다를 바 없다.

3.1.1.1. ㅎ라체의 平敍法 語尾

(1) 이 애긴 말 잘 곤나. '-아'
(2)가의 저넉의 온다. '-다'
(3)여름엔 이디도 덥나. '-아'
(4)이 씰은 질긴다. '-다'
(5)이 몰은 크다. '-다'

14) 현평효(1974)는 方言의 發話에서 語詞의 末尾에 添附되는 '-마씀, -게, -양, -예, -이' 따위들을 '添辭'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아', '-다' 등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의 진술 또는 느낌을 나타내기도 하며 나이에 관계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형태소 앞에서는 회상법 선어말 어미 /-더-/가 오지 못하고 '온다이', '덥나이' 등과 같이 '-이' 형태소가 첨가되는데 이 때의 의미는 다짐과 친근을 나타낸다.

(6)야의 말 잘 곧느네.
(7)철순 일 잘ᄒᆞ느네.
(8)그 사ᄅᆞᆷ 밧 하영 갈아시네.
(9)이 방은 어두우네.

(6)-(8)의 어느 발화에서나 화자가 주체의 동작 사실을 상대자(청자)에게 지시 확인시키고 있다.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네'이다. 이 '-네'는 다시 직설법의 형태소 '-니'와 평서법어미 '-에'로 분석이 된다.

(9)도 마찬가지로 어둡다는 사실을 상대자(청자)에게 지시 확인시켜 말하고 있는 발화로서 그 기능을 지닌 것은 '-네'이다.

직설법 평서법어미 '-네'는 2인칭과는 호응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용사에서는 직접 어간에도 결합되지만 정동사어간에는 직접 결합되지 못하고 반드시 선어말어미 다음에 결합되거나('-시네', '-느네'), 또는 '-ㅁ + 이' 다음에 결합된다.

(10)야의 말 잘 곧느니.
이 강아진 아무거나 잘 먹느니.
그 사ᄅᆞᆷ도 갑시니.

(10) 은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언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니'는 '直說法平敍語尾'라 할 것이다.

(11) ᄒᆞ꿈 이시민 말 ᄒᆞ메.
(12) 저것이 더 크메.

화자의 확신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그 기능은 '-메'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직설법평서어미에 포함된다.

(13) 가이도 밥 하영 먹더라.
그 사ᄅᆞᆷ 일 잘 ᄒᆞ여라.

모두 화자가 주체의 동작에 대한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언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먹더라' 'ᄒᆞ여라'의 '-더-' /-아-/-어-/는 회상법의 형태소이며 '-라'는 ᄒᆞ라체의 평서법어미인 것이다.

(14) 오늘밤 비오키여.
난 집의 가키여.
그건 나도 ᄒᆞ키여.

(14)는 화자의 추측, 의도, 가능을 언술한 것이다. '-ㅋ-'이 '추측, 의도, 가능'의 형태소이며, '-(이)여'는 긍정적 단정을 표시하는 ᄒᆞ라체의 평서법어미이다.

(15) 너희 돌당 푸더지려.

너무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경계를 하여 말한 것이다 이 발화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는 '-리'가 되며 '-어'는 ᄒᆞ라체의 평서법어미이다.

(16) 나도 ᄒᆞ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6)의 '-마'는 특수한 평서법 어미이다. 희망을 상대방이 들어주기 바라거나, 말하는 이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베풀어 그 실현을 기꺼이 약속할 때 쓰인다.

3.1.1.2. ᄒᆞ라체의 疑問法 語尾

(17) a. 가의 어디서 ᄒᆞ느니? (설명)
b. 가의 학교에 뎅기느냐? (판정)
c. 가의 말 곧느네? (확인)
a' * 느 어디서 ᄒᆞ느니?
b' * 느 학교에 뎅기느냐?
c' * 느 말 곧느네?

(18) a. 가의 어디 뎅겁시니? (설명)
b. 가의 학교에 뎅겁시냐? (판정)
c. 가의 학교에 뎅겁시네? (확인)

(19) a. 는 어디 뎅겁디? (설명)
b. 는 학교에 뎅겁댜? (판정)
c. 는 학교에 뎅겁데? (확인)
a' * 가의 어디 뎅겁디?
b' * 가의 어디 뎅겁댜?
c' * 가의 어디 뎅겁데?

(17)-(19)에서 ㅎ라체의 의문법 어미 '-니', '-냐', '-네', '-디', '-댜', '-데' 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여기서 더 분석해 들어가면 '-이', '-아', '-에'에 의해서 '설명, 판정, 확인'의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7)은 2인칭일 경우 호응이 안 되고, (19)는 3인칭일 경우 호응이 안 된다. (18)은 2,3인칭 모두 호응이 된다.

(17)일 경우 2인칭으로 바꾸려면 '홈이니, 뎅김이냐, 굴음이네'로 바꿔어야 한다.

(20) a. 언제 비 오크니? (설명)
b. 오늘밤 비 오크냐? (판정)
c. 낼 비 오크네? (확인)

(21) a. 느 언제 가크니? (설명)
b. 느 볼쎄 가크냐? (판정)
c. 낼 가크네? (확인)

(20)-(21)에서도 어간과 추측, 의도의 형태소 '-ㅋ-'을 분석하고 나면 '-니','-냐', '-네'가 남는다. 이것들은 ㅎ라체의 의문법어미이다.

(22) a. 는 낼 어디 갈디[갈티]?
b. 는 오늘 우리집의 올다[올타]?
c. 는 오늘 우리집의 올데[올테]?

(22)에서 어간과 '의도'의 형태소 '-ㄹ-'을 분석하고 나면 '-디', '-다', '-데'가 남는데 이 또한 ㅎ라체 의문법 어미가 된다. 여기서도 '-이', '-아', '-에'에 의해 설명, 판정, 확인 의문이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2)에서도 (19)에서처럼 '-디', '-다'는 반드시 2인칭 주어만을 허용한다.

그런데 안동방언에서 이 '-ㄹ다'는 추측, 가능, 의도를 나타내고, '-(으)ㄹ래'는 청자의 의도를 물을 때 쓰인다.[15]

(23) 니는 어제 참 좋았을다? (너는 어제 참 좋았겠다? 좋았겠네?)
이따 도착할다? (이따가 도착하겠다?)
니도 함께 드갈래? (너도 함께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평서법에서도 이것은 추측, 가능, 예정, 의구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이고 있다.

(24) 철수는 참 재미 좋을다 (철수는 참 재미 좋겠다).
내일은 잘 먹을다 (내일은 잘 먹겠다).
집에 담부가 이실다 (집에 담배가 있겠다).

또 '-ㄹ래'는 평서법에서 단정,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25) 그건 아무도 몰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난 잘 몰래 (난 잘 모른다).
그거 내가 다 먹을래
(그건 내가 다 먹는다, 먹겠다; 단정 또는 의도).

전남 방언에서는 '-을레'의 형태로 1인칭 주어의 서술문과 2인칭 주어의 물음문에 나타난다고 한다.[16]

(26) a. 내가 갈란다. (내가 가겠다)
a'. *내가 갈레?

---

15) 강신항, 안동방언의 경어법(김종훈편, 국어경업법연구, 집문당. 1984), pp. 617~620.

16) 이기갑(1982), 전남 북부 방언의 상대높임법, 언어학5, 한국언어학회, pp. 147~148.
여기서 '-을제'를 '-을자-'+'-이'로 분석하여 '-이'는 '해라체'의 물음씨끝의 하나로서 '-냐'의 한 변이형태로 보고 있다.

b. *니가 갈란다. (네가 갈란다)
b'. 니가 갈래? (네가 가겠느냐?)
c. *고 사람도 갈란다.
c'. *고 사람도 갈래?
d. *우리 함께 갈라자.
d'. *니가 갈라라.

현재 제주도의 청소년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발화가 빈번하다.

(27) a. 혼자 이실래?
b. 혼자 이서질래?

(27) a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b에서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가능을 묻고 있는 것으로 '-ㄹ 다'로 모두 환원이 가능하다. 주어가 청자일 때에만 쓰이고 서술어가 동작동사일 경우에만 쓰인다. 그 이유는 '-ㄹ래'가 갖는 속성이 청자의 의지를 타진하는 것으로 체언이나 상태동사 같은 (+ stative) 서술어에는 의지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자의 의지를 타진하므로 항상 질문에만 쓰인다.[1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8) 가의 뭐 먹어니?
가의 밥 먹어냐?
가의 밥 먹어네?
가의 집의 오라냐?

(28)의 '-아-/-어-'는 회상법의 형태소로서 '-대-'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아-/-어-'의 쓰임이 더 빈번하다. 이 회상법의 형태소를 분석해버리면 '-니, -냐, -네'가 남는데, 이는 바로 ᄒᆞ라체의 의문법 어미로서 각각 설명의문, 판정의문, 확인의문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3.1.1.3. ᄒᆞ라체의 命令法, 請誘法 語尾

방언에서의 명령법과 청유법은 그 어미구성체가 매우 간단하다.

(29) a. 느 혼저 공부ᄒᆞ라.

17) 최명옥(1976), 현대 국어의 의문법 연구, 학술원 논문집 15, p. 131.

b. 우리 ᄒᆞᆫ디 가자.
c. 우리 ᄒᆞᆫ디 글라.

(29)a는 명령문이고 b,c는 청유문이다. a의 '-라'가 ᄒᆞ라체 명령법 어미이고, b의 '-자',c의 '-라'는 ᄒᆞ라체 청유법 어미인데 모두 어간에 직접 붙는 것이 특징이다.

3.1.2. 흡서체

제주도 방언 흡서체의 청자 대우 형태소에는 '-우-', '-ㅂ-'이 있다.여기서는 그 쓰임을 살피기 위해 화자와 청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우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3.1.2.1. '-우다', '-우까'

(30) 이건 누게네 몰이우꽈 ?
그거 우리 몰이우다.
(31) 이거 집의 몰이라수가 ?
예, 우리 몰이라수다.
(32) 저어른 어드레 감이우꽈 ?
장에 감이우다.
(33) 집의 가쿠꽈 ?
예, 집의 가쿠다.
(34) 철순 혹게 가수꽈 ?
예, 혹게 가수다.
(35) 자인 어디 감수꽈 ?
혹게 감수꽨.
혹게 감수다.

흡서체의 청차 대우 형태소 '-우-'는 의문법에서든 평서법에서든 그 선행하는 형태소는 제약이 없으나, 후행하는 어미로는 의문법에서 '-꽈(까)', 평서법에서는 '-다'로 한정되어 있다.

선행하는 형태소들의 구성은 '-이-', '-이라(회상법)', '-크(의도법)-', '-아시/어시(완료존속)-', '-암시/엄시(미완료상)-' 등이다. 후행하는 어미로는 '-꽨'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 의문일 경우와 그에 대한 대답으로 평서법에서 쓰인다.

(36) 혹게 감수꽤 ?
예, 혹게 감수꽤.

형용사 어간에는 직접 '-우-'가 결합된다.

(37)이것이 크우파 ?
예 ,그것이 크우다.
(38)혹곰 해영ᄒᆞ우파 ?
예, 해영ᄒᆞ우다.

형용사일 경우 어간 말음이 자음일 때에는 '-시-'가 선행된다.

(39)이 고치 맵수과 ?
이 방은 족수다.
(40)그 사름 젊수다.
그 여자 곱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상에서 '-우-'는 흡서체의 청자 대우 형태소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분포가 평서법과 의문법에 국한되어진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3.1.2.2. '-ㅂ네까', '-ㅂ네다', '-ㅂ데까', '-ㅂ데다'

(41) 야읜 누게영 불룹네까 ?
철수엔 ᄒᆞᆸ네다.
(42) 성님 어드레 갑데가 ?
밧더레 갑데다.
(43) 불 숨암십데가 ?
숨암십데다.

여기서 직설법의 /-네-/, 회상법의 /-데-/, 의문법의 /-까/, 평서법의 /-다/, 그리고 , 미완료상 /-암시-/를 제외하고 남는 것은 청자 대우의 형태소 '-ㅂ-'이다. 위의 어느 발화에도 '마씀'을 붙일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청자 대우의 형태소가 들어 있는 흡서체의 발화로서 '마씀'이 결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3.1.2.3. '-ㅂ서', '-ㅂ주'

(44) 어둡기 전의 흔저 갑서.
(45) 밥 돗은 때 먹읍주.

'갑서'는 상대자에게 존대할 의향을 가진 화자가 그 상대자에게 명령하는 발화이다. '-서-'는 명령법 어미라 하게 되고, '-ㅂ-'이 청자 대우를 표시하는 형태소인 것이다.

'먹읍주'에서 '-주'는 (3.2.1.8)에서 밝힌 바대로 원래는 접속 어미로서 ㅎ여체의 종결 형태가 된 것이며, 모든 서법에 두루 쓰이는 형태소인데, 여기서는 '-ㅂ-'이 결합됨으로써 흡서체의 청유법 어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흡서체에서도 '-주'가 결합된 형태는 그 억양에 따라 평서법과 의문법에서도 쓰일 수 있으며 또 '마씀' 통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ㅎ여체 '먹주'에 '마씀'이 결합되고 '-ㅂ-'이 나중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밥 돗은 때 먹주
밥 돗은 때 먹주마씀
밥 돗은 때 먹읍주마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2. ㅎ여체와 ㅎ여마씀체

한국어의 문말 종결어미 체계를 통사적 서법(syntactic mood)[18]과 청자 대우 등급 체계라는 양대 지주에 의하여 설명하려 할 때 가장 심한 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반말체' 어미 '-지'와 '-어/-아'이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된다.[19]

첫째는 문장 종결형태소가 문장의 통사적 서법을 구분짓는 징표가 된다고 하면서도, 이 두 어미는 여러 통사적 서법에 두루 사용되어 그 구분을

18) Hausser(1980 : 93)의 술어로서 평서, 의문, 명령 등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향이 표시되는 서법을 뜻한다. 이와 대립되는 동사적 서법(verval mood)은 가정법, 직설법, 기원법 등을 포함한다.

19) 서정목(1988), '반말체' 형태 '-지'의 형태소 확인, 이혜숙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92. 참조.

드러내지 못하고, 그 구분을 문말의 억양이 맡는다고 예외적 기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밀히 말하면, 문장 종결 형태가 통사적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기술하거나, 아니면 이 반말체 어미는 종결 형태가 아니라고 기술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는 '반말체' 어미가 문장 종결 형태가 아니라는 처지에 선다.

둘째, 청자 대우 등급을 몇 등급 체계로 파악할 것인지 하는 문제의 결정도 바로 이 형태에 의하여 표현되는 '와체'(ㅎ여체)와 '와요체'(ㅎ여마씀체)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반말체'를 인정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 하는 혼란스런 논쟁들도 이 형태소에 대한 본질 파악과 직결되어 있다.[20]

이 형태소들은 문장 종결 형태소가 아니라 접속의 형태소 '-지', '-아/-어'와 동일한 형태소인 것이다.[21] 따라서 이들 형태소가 통합된 발화가 통사적 구분이 지어지지 않고, 수행 억양에 의해서만 그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어의 어떤 접속 형태소도 통사적 서법을 구분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이다. 서정목은 '옵니다체'(=합쇼체)[22]의 청자 등급을 논의하면서 한국어의 청자 대우체계를 청자 대우 형태소 '-이-' & '-잇-'[23]의 통합 여부에 의한 유무 대립의 체계로 파악되어야 하지, 과거와 같이 4-6 등급의 정도 대립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청자 대우 형태소의 유무에 의하여 대립되는 체계와, 접속 형태소와 거기에 '-요'가 붙어 형성되는 '와체' 및 '와요체'가 이루는 체계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분화되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 방언에서 'ㅎ여체'의 종결 형태소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종결 형태소인가를 밝혀내고, 왜 그 형태소들에 '마씀·양'이 통합되어 등외의 또 다른 체계를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0) 전게서, p.92. 참조.

21)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pp.105~143 참조.

22) 서정목(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학 17, pp.98~99.
'오-' 동사의 평서법을 이용하여 '온다(=해라)체', '오네(=하게)체', '오오(=하오)체, '옵니다(=합쇼)체'로 4등급의 명칭을 붙이고 반말체는 '와(=해)체', 반말 높임은 '와요(=해요)체' 그리고 절대문은 '오다(=하라)체'로 부르기를 제안했다.

23) 전게서, p.42. 참조.
'-이-'는 평서, 명령, 청유의 종결 형태소 앞에 쓰이고, '-잇-)은 의문의 종결 형태소 앞에 쓰이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이다.

3.2.1. ㅎ여체

3.2.1.1 ㅎ여체의 평서법 형태소 '-네', '-ㄴ 게', '-라'

(46) a. 오늘은 날이 덥네.
b. 그 쉐 큰게.
(47) a. 그 사름 밥 하영 먹언게.
b. 가의 잘 놀안게.
(48) a. 오늘밤 비 오크라.
b. 올흰 농ᄉᆞ 잘 되커라.

(46)의 '-네', '-ㄴ 게', (47)의 '-ㄴ 게', (48)의 '-라' 모두 '마씀·양'과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형태소들로서, ㅎ여체 평서법에 속한다.

(46)의 '-네', '-ㄴ 게'는 표준어의 '-ㄴ 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접속 형태소인 것이 종결 형태로 쓰였고, (47)의 '-어-'는 회상의 '-더-'이고, '-ㄴ 게'는 (46)과 같은 형태소이다.

(48)의 '-ㅋ-'은 추측, 의도, 가능의 형태소이고, '-(으)라', '-(어)라'는 ㅎ여체 평서법 어미이다.

(46)a의 '-네'는 표준어 하게체의 '-네'와 형태상으로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즉, (46) a의 '-네'는 어떤 상태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으로 (46) b의 '-ㄴ 게'의 형태로 교체 가능한 것으로, 동사일 경우 1인칭과 호응하지 않는다.

(49) a'. 오늘은 날이 더운게.
b'. 그 쉐 크네.

그러나 표준어 하게체의 '-네'는 '-ㄴ 게'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며, 또한 '-마씀' 통합이 불가능하다.

(50) a. 나 몬저 집에 가네.
b. 철수는 공부하고 있네.
c. 난 밥 먹었네.

(47)의 '-언게', '-안게' 는 회상 평서법 형태소로서 화자가 제 2,3 인칭인 자의 행동을 보았거나 상태를 확인한 경험을 회상하여 청자에게 보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는 형식으로 '마씀'과의 통합이 가능하다.

(48)에서 화자의 추측이나 의도를 표시하는 형태소를 '-ㅋ-'으로 보았는데, 표준어에서나 모든 방언에서 추측, 의도를 표시하는 형태소는 '-ㄹ-'인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의 '-ㅋ-'도 본래 'ㄹ+ㄱ'의 형태였지 않은가 한다. 즉 'ㄹ+ㄱ'에서 뒤의 'ㄱ' 된소리화되어 'ㄲ'으로 소리나게 되는데, 제주 방언의 특징상 거의 모든 된소리가 거센소리화하는 것으로 보아서 'ㄲ'이 'ㅋ'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후 앞의 'ㄹ'은 탈락되기도 하고 그냥 유지되어 발화되기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ㅇ 추측, 의도의 '-ㄹ-'이 탈락된 경우
비 오크라.
농수 잘 되커라.

ㅇ 추측, 의도의 '-ㄹ-'이 재생된 경우
쏠값 오를크라.
검질 무를크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ㅇ 어간말음 '-ㄹ'이 탈락한 형태
숭에기 사크냐?
난 마크라.
비 새크라.

(51) 그 사름 일 잘 ᄒᆞ데.
그 사름 볼쎄 나가데.
난 섭섭ᄒᆞ데.
가의 곱데.
너 합격ᄒᆞ엿데.

(51)의 발화들은 모두가 화자가 과거에 보고 듣고 느낀 경험들을 회상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들이다. 회상의 형태소는 '-ㄷ-'이고, '-에'는 ᄒᆞ여체의 평서법 형태소라 하겠다.

3.2.1.2. ᄒᆞ여체의 의문법 형태소 '-ㄴ고', '-ㄴ가'

ᄒᆞ여체의 의문 어미 '-ㄴ고', '-ㄴ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법을 가진다. 첫째, 구체적인 청자가 상정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 화자가 자

신에게 의심과 의구를 제기해 보는 자문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둘째, 간접 화법에서 간접 인용된 의문문의 어미로 쓰이고 의문문을 보문으로 요구하는 특정동사(예: '모르-', '의심하-', '궁금하-' 등)가 모문 서술어일 때 그 모문의 어미로 쓰인다. 이 때는 공손법 등급이 중화된 것이다. 셋째, 공손법 등급으로 보아 '하게체' 의문에 사용된다. 즉 화자가 대명사 '자네'로 지칭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일 때 그 손아랫 사람에 대한 대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어른이 장성한 아랫 사람을 어느 정도 대우해서 말하는 경우, 장성한 동년배끼리, 처가댁 어른들이 사위에게 대우해서 말할 경우 등).[24]

(52) a. 자원 무사 안 먹엄신고?
b. 자의도 그거 보안가?
c. 비 와신가?

(53) a. 나는 철수한테 서울에 언제 감신고 물어 보았다.
b. 영희도 학교 가신가 모르키여.
c. 삼춘 이제 도착ᄒᆞ여신가 궁금하다.

(54) a. 저 사름도 무실캄신가?
b. 자넨 무사 그듸 감신고?
c. 저 사름 어떵ᄒᆞ연 헤영혼고?
d. 자네도 가는가?

(55) a. 오늘 비 오큰가?
b. 저 사름도 낼 오컨가?

(52)는 자문으로 쓰인 문장에 '-ㄴ고', '-ㄴ가'가 나타난 것이다. (53) a는 간접 인용된 의문문의 어미로 쓰인 것이며, (53) b, c는 간접 인용된 의문문과 비슷한 용법이라 할 수 있다. (54)는 직접 의문의 질문으로서 ᄒᆞ여체에 속하는 것이다. (55)a는 상대방의 추측을, (55)b는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홍종림(1975)은 '-ㄴ고', '-ㄴ가'를 ᄒᆞ라체 의문법과 ᄒᆞ여체 의문법의 양쪽에 속하는 어미로 파악하고 있다.[25]

---

24)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pp. 50~51.

25) 홍종림(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pp. 183~209 참조.

3.2.1.3. ㅎ어체 의문법 형태소 '-카', '-코'

(56) a. 오늘밤 비 오카?
b. 우영에 무시거 싱그코?
c. 철수 이 글 알카(아카)?
d. 야이가 철수보다 크카?
e. 그거 사름이카?
f. 나도 가카?
g. 볼써 가시카?
h. 무사 안 왐시코?

(56)a는 판정 의문문이고 b는 설명 의문문이다. a의 '오카'는 '오 + ㄹ 가'로 분석이 가능하며, b의 '싱스코'는 '심그 + ㄹ 고'로 분석 가능하다. a의 '-ㄹ 가'는 된소리화하여 [-까]로 발음되는데[26] 제주 방언에서는 된소리를 거부하여 거센소리화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카'로 발음된다. b의 '-ㄹ 고', c-e의 '-ㄹ 가' 등도 마찬가지이다.

'-카/-코'를 '-ㄴ 가/-ㄴ 고'와 대조해 보면 '-ㄹ ':'-ㄴ '의 대립이 나타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 '-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문의 뜻은 '-가', '-고'에 의하여 표시되고 의미의 차이는 '-ㄹ '과 '-ㄴ '의 대립에서 생기는 것이다. '-카/-코'는 문말의 억양의 차이와 주어의 인칭에 따라 미세한 의미상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ㄹ '이 가진 [-決定性]이라는 의미 특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미세한 樣相的 의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ㄹ '의 [-決定性]에 의하여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대한 판단이 보류되므로, 주어의 행위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추측의문'으로 쓰이는 것이 '-카', '-코'의 일차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추측의문'이라는 기능 외에도 '행동 여부에 대한 주어의 의도를 의심'하는 부수적 의미가 표현되기도 하며, 나아가 '화자의 의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데도 사용된다. 그리고 '불확실한 가능성에 대한 의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27]

즉, '-카', '-코'의 양상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26) 이것은 중세국어의 관형사형 어미가 'ㅭ'로 적힌 것과 관련, 된소리화시키는 요소는 'ㅭ'이라 볼 수 있다.

27) 서정목, 전게서, p. 82. 참조.
최명옥(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5, pp. 56~57 참조.

첫째, 불확실한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둘째, 의도 표현으로 이는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 주어가 2, 3인칭일 때에는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고, 주어가 1인칭일 때는 화자의 의도에 대한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게 된다. 셋째,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다.

이러한 양상적 의미는 '-겠-'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카', '-코'에 들어있는 '-ㄹ'의 양상적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미세한 의미상의 차이가 주어의 인칭, 서술어의 종류 및 시제에 따라 결정되는 면도 있어서 주목을 끈다.

3.2.1.4. ㅎ여체의 平敍·疑問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안/-언'

(57) 고사 어디 갓다 완?
a. 아니, 집의 이서난.
b. 앞 집의 이서난.
(58) 고사 무시거엔 골안?
a. 웃다 아무거엔도 안 골안.
b. 혼저 오랜 ㅎ언.

ㅎ여체의 발화 종결 형태 '-안/언'이 의문법과 평서법에 두루 나타난 예이다. 이들은 모두 '마씀'을 통합시키면 청자를 대우하는 형태가 된다. 그것은 '-안/언'이 접속 형태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청자를 높이게 될 경우는 대우의 형태소 '마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59) 괴기 하영 잡안 <?,.>
괴기 하영 잡안 구원 <?,.>
괴기 하영 잡안 구원 먹언 <?,.>

위 문장은 '-안/언'에 의해서 한없이 길어질 수 있음을 말해 주며, 그것들의 순서는 일단 선행 동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후행 동작이 행하여짐을 알게 해 주는 것으로 '-안/언'이 접속형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위 문장의 어느 곳에서 발화를 종결시키더라도 어색하지 않으며, 또 어느 곳에서 '마씀'을 통합시키더라도 청자 대우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3.2.1.5. ㅎ여체 平敍·疑問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젠'

(60) a. 불써 밥 먹젠 (ㅎ엄서) ?

b. 난 밥 문저 먹젠 (빨리 돌려왓주).

모두 후행절이 생략되면 발화 종결 형태 '-젠'에 의해서 ㅎ여체 의문법과 평서법 문장이 된다.[28] 또한 청자를 대우하려면 거기에 '마씀'을 통합시키면 되는 것이다.

3.2.1.6. ㅎ여체 平敍·疑問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엔'

(61) a. 가의 무시거렌 (곧아니) ?
b. 가켄 (곧아라).
c. 쏠 너미 하멘 (곧아라).
d. 빨리 가겐 (곧읍데다).
e. 혼저 오랜 (곧읍데다).
f. 언제 가쿠겐 (들읍데다).

ㅎ라체의 문장이든 흡서체의 문장이든 후행절을 생략해 버리면 '-엔'으로 발화가 종결되면서 ㅎ여체의 문장이 되며, 청자 대우의 뜻을 나타내려면 거기에 '마씀'을 통합시키면 된다. 후행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엔'은 제주 방언의 인용 보문자이다.[29]

3.2.1.7. ㅎ여체의 平敍·疑問·命令·請誘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아/-어'

(62) a. 이거 무사 ㅎ여?
b. 느가 그 책을 읽어?

국어 의문문을 형식에 의하여 엄격히 정의할 때는 의문법 어말 어미를 통합시킨 문장만이 의문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문법 어미들의 공통점은 고대 및 중세 국어의 의문 첨사 '-가', '-고'를 여하한 방식으로든 어미 속에 융합시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문 첨사 '-가', '-고'와 관련을 맺을 수 없는 어미들은 일단 의문법 어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

28) '-젠'은 표준어 '-고자', '-(으)려고'에 해당하는 접속 어미로서 '의도'의 뜻을 가지며, 뒷 문장의 사건 전개의 조건이나 전제를 나타낸다. 성낙수(1984)는 '-저'를 기본 형태로 보고 이형태로 '-젱', '-젠'을 들고 있다.

29) 고영진(1984),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다.

그러나, 의문이 이러한 의문법 어미로 끝난 문장에 의해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른 어미로 끝난 문장에 의해서도 의문은 표시될 수 있다. 이 어미들은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평서법, 명령법 등 여타의 서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에 통용되는 어미로서, 상황에 의존하여 문말의 수행 억양에 의해서만 특정 통사적 서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미들이다. 이러한 어미가 통합된 문장에 의해서도 의문이 표현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문문은 의문법 어미에 의한 의문문과 수행 억양에 의한 의문문으로 나누어진다.[30]

'-아/-어'(이하 '-어'로 나타낸다)는 대우법 등급상으로 반말체 어미에 해당한다. 이 대우법 등급은 엄격하게 '해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어'는 용언 어간과 계사 뒤에 쓰인다. 그리고 '-이'의 실현에는 주어의 인칭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관여하지 않는다.

(63) (나, 느, 철수)가 그 책을 읽어?

'반말체' 어미 '-어'는 선어말 어미 '-엇-' 뒤에는 통합될 수 있으나, '-더-', '-느-'와는 어떤 경우에도 통합되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4) 철수가 그 책을 읽어서?
* 철수가 그 책을 읽더어?
* 철수가 그 책을 읽느어?

원칙적으로 '-아'와 '-어'는 모음조화의 짝으로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양성모음으로 된 어간에 바로 통합될 때만 '-아'가 쓰이고, 선어말 어미 '-앗-' 뒤에는 언제나 '-어'로 나타난다.[31]

(65) 이것이 높아?
바닥 씰어?
ㄱ메기 하영 잡아서?

'-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문문뿐만 아니라, 평서문, 명령문으로 해석

30) 서정목, 전게서, pp. 104~105 참조.

31) 만일 '-아'로 나타난다면 ᄒᆞ라체 의문문이 된다.
예) ᄀᆞ메기 하영 잡아샤(잡아사)?

될 수 있는 발화에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66) 공부ᄒᆞ여

위의 경우, 우리는 억양의 관여 없이는 이 문장이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해석될 지 알 수 없다. 위 문장에 대한 서법상의 문장 종류 판단은 전적으로 억양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어미이다.

(67) a. 가원 남자라(서) 그런디 가민 안되주.
b. 가원 학생이라(서) 그런디 가민 안되주.
c. 가원 학생이라.

계사 뒤에서 접속 어미 '-어'가 '-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세국어의 한 특징이기도 하였다.

(68) a. 石壁에 수멧던 내 ᄠᅳ글 아니라도 하ᄂᆞᆯ ᄠᅳ들 ᄠᅱ 모ᄅᆞᄉᆞᄫᆞ리 (龍歌 九:37)
b. 내 겨지비라 가져 가디 어려ᄫᆞᆯᄊᆡ (月釋 一:13)
c. 우리는 罪 지슨 모미라 하ᄂᆞᆯ해 ᄆᆞᆫ 가노니 (月釋 二十一:201)

'-어도'에 해당하는 '-라도'를 볼 수 있으며, 접속 어미로 쓰인 '-어'가 계사 '-이-' 뒤에서 '-라'로 교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67)c에서 보듯이 종결 어미 '-어'가 계사 뒤에서 '-라'와 교체될 수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이 종결 어미 '-어'와 접속 어미 '-어'가 동일한 음성 실현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증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7)c의 '-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평서법 어말 어미 '-다'가 선어말 어미 '-더-'와 계사 '-이-' 뒤에서 '-라'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 '-라'를 계사 뒤의 어말 어미 '-다'의 교체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종결 어미 '-어'가 계사나 '-더-' 뒤에서 '-라'로 교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69) a. 철수가 학생이라{ . , ? }
b. 철수가 산에 가더라{ . , ? }
c. 가는 날이 장날이라라{ . , ? }

a는 평서문으로도, 의문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장이 '해라체'로 쓰일 때는 평서법 어말 어미 '-다'가 계사 뒤에서 '-라'로 교체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b,c는 선어말 형태 '-더-/-라-' 뒤에서 '-다'가 '-라'로 교체된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평서법 문장을 되받은 反響 疑問(echo ques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우법 등급으로 보아 'ㅎ라체'로 쓰일 때에만 평서법 '-다'의 이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동일한 '-라'가 계사 뒤에 통합되었지만 'ㅎ라체'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흔히 '반말체'로 불리우는 'ㅎ여체'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70) a'. 철수가 학생이라{ . , ? }
b'. 가의도 이젠 살크라{ . , ? }
c'. 가의가 분질러분 거라{ . , ? }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앞의 (69) a-c의 '-라'와 동일한 '-라'를 통합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라'인 것이다.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문말에 다시 통합되는 대우법 요소 '-앙'이나 '-마씀'을 결합시켜 보는 것이다. (69)a-c가 'ㅎ라체'라면, 손윗 사람이 손아랫 사람에게 '-앙'이나 '-마씀'을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들에 '-앙'이나 '-마씀'을 통합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 모든 통사적 서법에 걸쳐서 'ㅎ라체'의 어말 어미에 '-앙'이나 '-마씀'이 붙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70) a'-c'의 '-라' 뒤에는 '-앙'이나 '-마씀'의 통합이 가능하므로 이 문장들의 '-라'는 평서법 어미 '-다'의 이형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 '-라'는 무엇인가? 계사 서술어에 통합되어 평서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 대우법 요소 '-앙', '-마씀'의 통합을 허용하는 형태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ㅎ여체' 어말 어미 '-어'일 수밖에 없다.

접속 어미 '-어'와 종결 어미 '-어'를 묶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획득하게 된다. 종결 어미 '-어'는 그것이 통합된 문장의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중립적일 때 쓰인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것은 접속 어미 '-어'의 의미와 상통하는 바가 많다. 다음의 두 예문이 단적으로 말해 주듯이 접속 어미 '-어'는 화자가 내리는 선행절의 명제 내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판단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71) a. 순이는 학생이라(서) 그런 일은 못한다.
b. 순이가 학생이라(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71)a에서 '-라(서)(=어(서))'의 뜻은 '순이가 학생이라'는 명제적 내용을 긍정하는 것이다. 즉, a에서 '순이는 학생인'것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b에서 '-라(도)(=어(도))'의 뜻은 '순이가 학생이라'는 명제적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b에서 '순이는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물론, 경우에 따라 학생일 수도 있긴 하다). 이 사실은 '-어(=-라)'로만 끝났을 때 선행절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긍정, 부정의 어느 경우로도 해석 가능한 중립적인 것이라고 해야만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중립적인 '-어(=-라)'에 '-서'나 '-도'가 붙어서 긍정과 부정의 어느 한 쪽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론적, 의미론적 대조에 의하면 접속 어미 '-어'와 종결 어미 '-어'는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른 '해여체' 어말 어미로 알려져 있는 '-지(=-주)'에 대한 기술과 '-어'에 대한 기술이 평행적으로 통일적인 설명 원리에 의하여 명쾌하게 해명되는 잇점을 얻게 된다. 뒤에서 종결 어미 및 접속 어미 '-주'가 중세국어의 접속 어미 '-디비'에 연원하는 것으로 논증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고', '-면서', '-은데' 등의 거의 모든 접속 어미로 끝난 문장이 의문 수행 억양에 의하여 의문문처럼 해석된다는 설명과 접속 어미 '-어'나 '-지(-주)'로 끝난 문장이 의문 수행 억양에 의하여 의문문처럼 해석된다는 설명이 동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모두 통일적으로 접속 어미에 수행 억양이 걸리고 후행절이 발화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미완성의 소형문(minor sentence)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 종결의 '-어', '-지(-주)'가 접속 어미에서 온 것이지만 그것이 지위가 다른 접속 어미 '-고', '-면서', '-은데' 등과 달리 대립되어 온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들은 '반말체' 종결 어미로 접속 어미와는 구분되어 왔다.

이것이 대우법 등급상으로 '해여체'인 '반말체'가 되는 것은 모든 접속 어미와 같이 청자에 대한 대우가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이나 '-마씀'을 붙여 손윗 사람에게 쓰이는 '해여마씀체'(마씀 통합형)를 형성하게 되어 종결 어미에 의한 대우법 등급 체계인 격식체(formal)와는 별개로 비격식적(informal) 등급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도 이로써 말끔하

게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태소 층위에서는 문장 종결의 '-어', '-주(-지)'가 접속 어미 '-어', '-주(-지)'와 묶일 수 있지만, 어미 층위에서는 '-어', '-주(-지)'를 'ㅎ여체' 종결 어미로 독립시켜 놓는 것도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통 문법의 어미 개념으로 보면 이들이 부사형 어미 '-어', '-지', 접속 어미 '-어', '-지(=-주)', 종결 어미 '-어', '-지(=-주)로 파악되는 것이지만 구조주의적 형태소 개념으로 보면 부사화 형태소 '-어', '-지, 접속화 형태소 '-어', '-지(=-주)'로 파악되며, 생성 문법의 통사 이론에 의하면 S'를 형성하는 보문자(COMP)로 파악되는 것이다.

현대국어의 분석에서는, 문장 종결의 '-어'가 형태소상으로는 접속 어미 '-어'와 동일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언원된 것이지만, 어미 층위에서는 어말 어미의 하나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문장 종결의 '-어'는 '반말체'의 문장 종결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통합된 문장이 평서, 의문, 명령, 청문으로 각각 해석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문말의 수행 억양이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32]

3.2.1.8. ㅎ여체 平敍·疑問·命令·請誘法에 두루 쓰이는 形態素 '-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2) 가읜 아무거나 잘 먹주{ ? , . }
(73) 이건 가의 책이주{? , .}
(74) 그 사름 여기 살암주{? , .}
(75) 가의 이젠 다 갓주{? , .}
(76) *가읜 아무거나 잘 먹더주{? , .}
(77) *가읜 아무거나 잘 먹{느, ㄴ, 는}주{? , .}

(72)-(75)의 '-주'는 ㅎ여체의 종결 형태로서 '-아/-어'와 마찬가지로 접속 형태소 '-주'와 같은 형태소이다. 따라서 '-아/-어'에서 보았듯이 이 형태 또한 모든 서법——평서·의문·명령·청유——에 두루 쓰이는 것이다.

(72)는 서술어가 동사인데도 선어말 형태의 개재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것은 여타의 종결 형식들이 갖는 '-느-'를 앞세운다는 특징과는 차이나는 점이다. (76),(77)에서 보듯이 '-주'는 '-더-'를 앞세우지 않으

32) 전게서, pp. 120~121.

며, '-느-'의 어떠한 이형태도 선행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이 형식의 통사론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이러한 통합적 특징으로부터 이 형태가 종결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평서, 의문의 종결 형식(명령이나 청유의 종결 형식은 그 통사적 서법의 속성상 이러한 선어말 형태를 선행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들은 이 '-느-'와 '-더-'를 선행시켜야 하고 선행시키지 않을 때는 절대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선어말 형태 '-느-', '-더-'를 앞에 통합시키지 않는 어러한 특징은 접속 형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78) a. 철수는 산을 좋아허{*더, *느}주,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b. 느도 가사주, 안 가민 안 된다.
c. 느 일을 느가 해사주, 누게가 해주커니?

중세 한국어의 접속 형태는 '-디비'로 나타난다. 선행절의 진술 내용을 강조하고 후행절의 진술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는 억지적 반의의 등위 접속 형태는 중세에선 다음에서 보듯이 '-디비'이다.[33]

(79) a. 이에 든 사ᄅᆞᄆᆞᆫ 죽디비 나디 몯ᄒᆞ누니라 (釋詳 二十四:14)
b. 比丘ㅣ 큰 계ᄅᆞᆯ 디녀 앗거든 比丘尼가 正法을 비ᄒᆞ디비 업시우믈 말씨오. (月釋 十:20)
c. 오직 이 몸 나ᄒᆞᆫ 어미ᄅᆞᆯ 救ᄒᆞ디비 더 먼 뉘엣 靑提ᄅᆞᆯ 救ᄒᆞ미 아니라 (月釋 二十三:93)
d. ᄒᆞᆫ갓 디나가ᄂᆞᆫ 나그내 눈ᄉᆞ므를 보디외 主人의 恩惠ᄂᆞᆫ 얻디 몯ᄒᆞ리로다 (杜諺 七:10)

(80) a. 브즈더니 受苦호ᄆᆞᆫ 것고 거츠러ᄆᆞᆯ 브터 니디비 엇뎨 道에 브트리오. (月釋 十四:79)
b. 놀난 매ᄂᆞᆫ 바ᄅᆞ 虛空앳 大鵬을 티디워 엇뎨 ᄆᆞᆯ 밋ᄃᆡ 톳기ᄅᆞᆯ 도라 보리오. (南明 上:11)
c. 偶然히 그리 ᄒᆞ디웨 어느 ᄌᆞᆨ히 期約ᄒᆞ리오 (杜諺 二十二:16)
d. 오직 梅花 펫ᄂᆞ니라 니ᄅᆞ디웨 어느 버드리 ᄯᅩ 새로 외요ᄆᆞᆯ 알리오. (杜諺 十八:20)

---

33) 이숭녕(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pp. 258~259.
김완진(1972), 다시 β)ω를 찾아서, 어학연구 8-1, pp. 152~53.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p. 168.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p. 577.

이 형태소 '-디비'가 출현하는 구성은 (78)에서 제시한 표준어의 '-지', 방언의 '-주'가 실현되는 구성과 동일하다. 즉, 선행절의 진술 내용을 강조하고, 후행절에 그에 상반된 '부정의 표현'을 두거나, '수사 의문적인 의문문'을 접속시켜 강하게 부정하는 용법을 가진 형태소인 것이다. (79)이 후행절에 '부정의 표현'을 둔 것이고, (80)이 후행절에 '수사 의문문'을 둔 것이다.

따라서, 통사 의미상으로 접속 형태 '-지', '-주'가 중세의 '-디비'를 이어받는다고 보아 큰 잘못은 없다.

그러면, 형태, 음운론적인 면에서 '-디비'가 '-지', '-주'로의 발달 과정은 어떠한가?

(79),(80)에서 보듯이 '-디비'는 /ㅸ/의 소실과 함께 '-디외', '-디위', '-디웨'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이 표기들은 'β〉w'의 변화에 의하여 생긴 wi를 표기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하고,[34] wi의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w와 i 사이에 서로 다른 모음들이 개입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여[35] 국어 음운사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ㅸ/의 변화를 증언하는 특이한 증거였다.

그리고 김완진은 "15세기 전반의 '-디비'를 이어받은 15세기 중엽의 후계형으로 '-디외', '-디위', '-디웨'의 셋밖에 문증되지 않지만 '-디위'에 대한 '-디외'가 있으므로 '-디웨'에 대한 '-디왜'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쓰인 실례에는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36]고 하고 "이 형태소의 후계형 '-지'는 '-디위', '-디외', '-디웨'의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령 '-디위'가 정상적으로 현대어에까지 발전해 왔다면 제주도 방언에서의 '-쥐'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여 마땅한 것이다."[37]고 기술하고, 현대의 '-지'는 '*-디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 '-디위', '-디외', '-디웨'의 표기상의 후계형으로 보는 '-도에'가 16세기 자료인 삼강행실도(1581, 선조 14, 만력 9년판)에 나타난다.[38]

(81) a. 샤ᄎᆡᆨ을 ᄒᆞ마 몹시 ᄆᆡᆼᄀᆞᄅᆞ실ᄉᆡ 줌줌티 몯 ᄒᆞ야 얼즙도에 ᄂᆞ미

34) 이기문(1969), 중세 국어 음운론의 제문제, 진단학보 32, p.143.

35) 김완진(1974), 음운 변화와 음소의 분포, 진단학보 38, pp.116~17.

36) 김완진(1972), 전게서, P.53.

37) 김완진(1974), 전게서, PP.116~17.

38) 서정목, 전게서, p.135. 참조.

달애요ᄆᆞᆯ 드르팅잇가. (三綱 忠臣:32)
b. 오직 나랏 도ᄌᆞᆨᄀᆞᆯ 의론ᄒᆞ도에 ᄂᆞ미 말 드르랴.
(三綱 忠臣:32)
c. 신해 각각 ᄆᆞᅀᆞᆷ ᄉᆡ장 ᄒᆞ디웨 쓰며 아니믈 의론ᄒᆞ팅잇고.
(三綱 忠臣:24)

(81) a, b의 '-도에'는 선행절의 진술 내용을 강조하고 후행절에 수사의문을 두어 강하게 부정한다는 면에서 15세기의 '-디비'와 동일한 통사구조에서 '-디비'의 후계형이 '-디웨'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디비'의 변화 가능 형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39]

(82) a. 디비 > *디이 > *지이 > 지 (중앙어)
b. 디비 > *디왜 > *됴애 > 죠애 > 좨 (혹은 죠애 > 죠ㅐ > 좨) (영동 방언)
c. 디비 > *디오ㅐ >됴에 > *죠애 > 조ㅐ (혹은 죠에 > 죠ㅐ > 조ㅐ) (경상 방언 '-제')
d. 디비 > 디웨 > *듀애 > *쥬에 > 주에 > 줴 > (혹은, 쥬에 > 쥬에 > 쥬ㅐ > 줴) (경상 방언 '-제')
e. 디비 > 디위 > *듀이 > *쥬이 > *주이 > 쥐 (혹은, 쥬이 > 쥬이 > 줘 > 쥐) (제주 방언 '-쥐')
f. 디비 > 디위 > *디우 > *듀 > *쥬 > 주 (제주 방언 '-주')

그러면 왜 접속 형태가 문장 종결 형식처럼 사용되는가?

우리가 발화라고 부르는 것은 문장일 수도 있고 문장의 토막일 수도 있다. 만약 형식에 엄격하게 문장을 '문말 종결 형태를 갖춘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발화라는 것은 그러한 문장과 문말 종결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휴지에 의하여 화자의 말이 일단 끊어진 말 토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로 끝난 것은 문장의 자격을 가지지는 못하고, 발화의 지위만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40]

---

39) 서정목(1988a), p. 102 참조.
f.는 필자가 자의적으로 확인한 것임.

40) 전게서, p. 104. 참조.
'발화의 종결 위치'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임.

우리는 '-주'로 끝난 발화가 선행절 + 후행절의 접속문 구성에서, 후행절이 담화의 조건에 의하여 생략되어 발화되지 않고 선행절만 발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78) 의 a, b에서는 후행절에 부정적 표현을 두었고 (78)의 c에서는 후행절에 수사 의문문을 두어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형적인 접속 형태 '-디비', '-주'의 용법을 보이고 있다. 만약 담화상의 상황이 보장되어 후행절을 생략하고 발화하지 않으면 (78)로부터 의문문이나 평서문으로 해석할 수있는 발화를 얻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83) a. 철수는 산을 좋아허주{? , .}
b. 느도 가사주{? , .}
c. 느 일은 느가 해사주{? , .}

이렇게 접속 형태소로 끝난 발화가 독립되어 쓰이면 전형적인 '반말(半말)'이 된다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

(84) a. 철수는 산을 좋아허주{? , .}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b. 느 일은 느가 해사주{? , .}
(누게가 해 주커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4) a에서 후행절이 담화상 생략되고, (84) b에서도 후행절이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화자는 (84) a에서 '철수는 산을 좋아한다'는 사실과 b에서 '네 일은 네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화용상으로 전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문의 경우 청자도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평서의 경우 청자에게 다짐하고 있는 듯한 강한 확신의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 해명된다. 화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을 청자에게 다짐하는 이러한 의미상의 특징은 바로 '-주(-지)'가 가지는 선행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후행절을 '부정'하거나 '수사 의문'에 의하여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는 원래의 기능에서 온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주(-지)'에 이끌리는 선행절의 내용만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묻거나 진술할 때는 그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것이다.

접속문의 '-주'가 사용된 문장의 의미와 발화 종결의 '-주'가 사용된 문장의 의미가 유사한 까닭은, 접속문 구성에서 접속 형태소 '-주'로 된 선행절이 후행절의 생략에 의하여 독립된 발화로 실현됨으로써 질문이나 진술로 해석되면 그 속에 담긴 강한 확신의 뜻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인 의

문이나 다짐의 진술로 해석되고, 이에 대하여 청자는 의문의 경우 거의 긍정적 응답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상으로 왜 접속의 '-주'와 발화 종결 위치의 '-주'가 유사성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가 그 둘을 같은 형태소라고 함으로써 해명되는 것이다. 역으로는 접속의 '-주'와 발화 종결의 '-주'가 의미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의 형태소로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접속 형태소는 후행절이 생략되면 발화 종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때 통사적 서법의 구분은 수행 억양이 담당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접속 형태소 '-주(-지)'로 끝난 발화가 의문·평서법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어의 모든 접속 형태소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접속 형태소가 발화 종결의 위치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일부의 형태소가 다른 접속 형태들에 비하여 더 자주,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이런 형상을 보인다고 해서 그 접속 형태를 종결 형태 어미화했다고 다루는 문법 기술이 심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임도 자명해진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문법 기술은 동일한 형태소를 문장 종결 형태소로도, 접속 형태소로도 나열해야 하는 중복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루어진 '호여체 어미'로 불리고 있는 형태소들은, '반말체' 종결어미가 아니라 첫째, 접속 형태소가 발화 종결 위치에 나타난 것이거나 둘째, 원래 간접 인용된 의문문의 어미로서 후행발화를 생략한 것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41]

3.2.2. 호여마씀체

한국어의 청자 대우는 청자 대우 형태소 '-이- ' & '-잇-'의 통합 여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42] 제주도 방언의 청자 대우는 청자 대우 형태소 '-

41) 표준어의 '-은데', '-면서'로 끝난 의문문에서의 '-은데', '-면서'도 의문 종결 어미가 아니며, '-다면서', '-다고', '-다니' 등이 종결의 접미사인 것도 아니다. '-다면서', '-다고', '-다니' 등은 평서법 종결 형태 '-다'에 접속의 '-면서', 인용의 '-고', 접속의 '-니'가 복합문 형성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태소 통합체로 기술되어야 한다.

42) 서정목(1988b),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학 17, 국어학회, p. 112 참조.

ㅂ-', '-우-'의 통합 여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어의 발화는 접속 형태소로 끝날 수도 있다. 접속 형태소뿐만 아니라 조사로 끝난 句도 어디에서나 필요하면 끊어서 발화하여, 반토막 발화가 후행 요소들을 생략한 채 독립되어 사용될 수 있다.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85) 갑: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을: 철수가.
(86) 갑: 철수가 무시거 먹엇겐?
　　을: 떡.
(87) 갑: 무사 울엄서?
　　을: 하도 야속허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만약 이러한 반 토막 발화를 듣게 되는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의 인물이어서, 청자를 대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자가 강구할 수 있는 방책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5)' 을: 철수가요.
(86)' 을: 떡마씀.
(87)' 을: 하도 야속허연마씀.

(85)'-(87)'는 손윗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발화가 된다. (85)'의 '-요'는 표준어의 형태이고, (86)', (87)'의 '-마씀'은 제주도 방언의 형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출현은 매우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휴지가 올 수 있는 곳의 바로 앞자리에는 출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88) 무사 털엄디?
　　추언마씀.
(89) 저거 누게네 쉐고 ?
　　우리 쉐마씀.
(90) 어느 걸로 사코 ?
　　큰 걸로 사주마씀.
(91) 어떵허코 ?
　　재기 가주마씀.

(92) 비 오카마씀 ?
오, 비 오키여.
(93) ᄂᆞ탐지 더껀마씀 ?
오, 더껏저.
(94) 비 와도 일덜 ᄒᆞ염신가마씀 ?
ᄒᆞ염시커라.

이들 형태의 본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대적인 사용의 역사적 시기가 언제인지는 대체로 말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들 형태소 자체의 기능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다름아닌 청자에 대한 공손한 표현을 나타낸 것으로 또 하나의 청자 대우 형태소인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마씀' 통합이 불가능하다.

(95) * 가의 저넉의 온다마씀.
(96) * 여름엔 이디도 덥나마씀.
(97) * 이 방은 어두우네마씀.
(98) * 저것이 더 크메마씀.
(99) * 가의도 밥 하영 먹더라마씀.
(100) * 오늘밤 비 하영 오키여마씀.
(101) * 너미 돈당 푸더지려마씀.
(102) * 가읜 줌잠저마씀.
(103) * 이건 누게가 ᄒᆞ느니마씀 ?
(104) * 가의 학교에 뎅기느냐마씀 ?
(105) * 낼 어디 갈디마씀 ?
(106) * 혼저 공부ᄒᆞ라마씀.

(107) * 이건 누게네 몰이우꽈마씀 ?
(108) * 그거 우리 몰이우다마씀.
(109) * 성님 어드레 갑데가마씀 ?
(110) * 밧더레 갑데다마씀.
(111) * 어둡기 전의 혼저 갑서마씀.

이상에서 (95)-(106)의 발화들은 ᄒᆞ라체 어미에 '마씀' 통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107)-(111)의 발화들은 흡서체 어미에 '마씀' 통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ᄒᆞ라체에는 이미 '하대'의 의향이 포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되어 있어서 '하대+존대'의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흡서체에는 이미 존대의 의향이 포함되어 있어서 '존대+존대'의 이중적인 수고를 허용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흡서체 어미에서는 이중의 청자 대우 표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112)밥 돗은 때 먹읍주마씀.
거 나가 흡네까마씀 ?

이 경우는 '마씀'이 존대의 기능으로서보다는 발화가 종결되었음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방언의 '-마씀'은 '-ㅂ-', '-우-'가 통사적 서법을 구분짓는 문장 종결의 형태소 앞에 종결 형태소가 쓰이지 않는 위치에 나타나서 청자를 높게 대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 문장 종결 형태소가 사용되지 않은 발화에는 이 청자 대우 형태소 '-마씀'이 통합되어 청자를 대우해 주는 발화가 된다. 다음의 어떠한 발화에도 이 형태소를 통합시키면 높임말이 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3) 갑: 순이는 어디 가고{요, 마씀}
을: (순이는) 집에 가고{요, 마씀}
(114) 순이는 떡을 먹엇{지, 주} {요, 마씀}
오늘은 가{야, 사} {지, 주} {요, 마씀} {? , .}
(115) 순이가 떡을 먹어서{? , .}
순이가 떡을 먹어서마씀{? , .}
순이가 학생이라{? , .}
순이가 학생이라마씀{? , .}
오늘은 순이가 가사ᄒᆞ여{? , .}
오늘은 순이가 가사ᄒᆞ여마씀{? , .}

(114)는 접속 형태소 '-지', '-주'로 끝난 '반말체' 발화에 '-마씀'을 붙여 '반말 높임'이 된 것이며, (115)는 접속 형태 '-아/-어'로 끝난 '반말체' 발화인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마씀'을 붙이면 청자를 높이는 '반말 높임'이 된다. 따라서 과거 'ᄒᆞ여체'라는 이름으로 종결 어미 '-아/-어'로 끝난 문장의 청자 대우상의 등급을 'ᄒᆞ라체'와 '흡서체' 사이에 두고 '-마씀'이 통합된 문장을 흡서체에 포함시켜 기술한 것은 이제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제주도 방언의 청자 대우 등급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o 청자 대우 형태소 '-ㅂ-', '-우-'의 유무에 의한 대립: 존대의 의사가 있을 경우 '-ㅂ-', 또는 '-우-'가 통합된 '합서체'를 사용하며, 존대의 의사가 없을 경우 '-ㅂ-' 또는 '-우-'가 통합되지 않은 'ᄒᆞ라체'를 사용하는데, 대우상 각각 존대, 비존대가 된다.

o 청자 대우 형태소 '-마씀'의 유무에 의한 대립: 표준어에서의 반말(半말; 문장 종결 형태소가 아닌 형태소로 끝난 반토막 발화)에 해당하는 'ᄒᆞ혀체'는 대우상으로 중립이다(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음). 여기에 '-마씀'이 통합되면 대우상 존대에 해당한다.[4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3) ᄒᆞ여체+이=하대
ᄒᆞ여체+양=존대 이므로 하대의 '-이'와 존대의 '-양'을 뺀 ᄒᆞ여체 형태는 대우상으로 중립임이 분명해 진다. (-존대, -하대)

4. 結　論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ㅎ라체 의문법 어미는 '-이', '-아', '-에'의 모음 대립에 의해서 각각 설명·판정·확인의문어미로 나뉜다.

(2) ㅎ라체 어미에는 이미 '하대' 의향이 포함되어, '하대+존대'의 모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높임의 첨사 '마씀'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3) 흡서체 어미에는 첨사 '마씀' 통합이 불가능하나, 최근 '-ㅂ주마씀' 형식으로 빈번히 발화되고 있다. 그것은 ㅎ여체 형태소 '-주'가 원래 접속 어미로서 마씀 통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ㅂ-'은 나중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흡네까마씀'과 같은 발화도 보이나 흔치는 않다.

(4) 모든 ㅎ여체 어미에는 '마씀' 통합이 가능한데 그것은 ㅎ여체 어미로 불려지고 있는 것들이 첫째, 접속 어미에서 온 발화 종결 형태이거나, 둘째, 원래 간접 인용된 의문문의 어미로서 후행 발화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추측·의도 표현·가능성에 대한 의심 등의 형태소 '-카', '-코'일 경우도 '마씀' 통합이 가능하다.

(5) 계사 뒤의 '-라'는 '마씀' 통합이 가능한데 이것은 중세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접속 어미 '-어'의 이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ㅎ라체의 '-라'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6) ㅎ여체의 발화 종결 형태소 '-주'는 표준어의 '-지'와 기능이 같은데, 이것은 중세어의 접속 어미 '-디비'에서 온 것이다.

끝으로, 제주도 방언의 청자 대우법의 등분은, 격식체로서 ㅎ라체와 흡서체의 대립(청자 대우 형태소 '-ㅂ-', '-우-'의 유무에 의한 대립), 비격식체로서 ㅎ여체와 'ㅎ여마씀체'의 대립(청자 대우 형태소 '-마씀'의 유무에 의한 대립)으로 체계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참고 문헌 >

강신항 (1984), 안동 방언의 경어법, 김종훈 편 국어 경어법 연구,집문당

강정희 (1978), 제주 방언 접속문의 시제에 관한 일고, 어학연구 14-2, 서울대

——— (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고영근 (1974a),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10-1, 서울대

——— (1974b),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서울대

고영진 (1984), 제주 방언의 인용문 연구, 석사학위 논문(연세대)

김귀자 (1974), 제주도 방언의 존경 접미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화여대)

김민수 (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김석득 (1968), 현대국어 존대법의 일치와 그 확대구조, 국어국문학41, 국어국문학회

김영돈 현용준 (1980), 한국 구비문학 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81), 한국 구비문학 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83), 한국 구비문학 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영태 (1977), 경남 방언 종결어미의 경어법 연구, 논문집 제4집, 경남대

김영희 (1975), 의문문의 이접적 특성, 문법 연구 2, 문법 연구회

김완진 (1972), 다시 ʒ〉ω를 찾아서, 어학 연구 8- 1, 서울대

——— (1974), 음운 변화와 음소의 분포, 진단학보 38,진단학회

김종택 (1981), 국어 존대법의 위상과 그 기술, 국어교육논지 5,경북대

김형규 (1947), 경양사의 연구, 한글 99, 한글학회

——— (1975), 국어 경어법 연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김혜숙 (1991), 현대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남기심 (1981), 국어 존대법의 기능, 인문과학 45, 연세대

박양규 (1975), 존칭체언의 통사론적 특징, 진단학보 40, 진단학회

박영순 (1976), 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박용후 (1960), 제주 방언 연구, 동원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서병국 (1968), 존대법시비고---15c의 객체겸양법(숩)을 중심으로, 경북대 논문집 제 10집, 경북대
서정묵 (1981),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의 문법편에 대하여, 방언 5
------ (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1988a), 반말체 형태 '-지'의 형태소 확인, 이혜숙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 (1988b),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 국어학 17
서정수 (1972),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권 2호,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성기철 (1970), 국어 대우법 연구, 충대 논문집, 충북대
------ (1991), 국어 경어법의 일반적 특징, 새국어생활 제 1권 제 3호 국립 국어 연구원
성낙수 (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
신창순 (1962), 현대국어 존대법의 개설, 문리대학보 5, 고려대 문리대
안병희 (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 (1982), 중세국어의 겸양법 연구에 대한 반성, 국어학 11, 국어학회
이기갑 (1982), 전남 북부 방언의 상대 높임법, 언어학 5, 한국 언어학회
이기문 (1969), 중세 국어 음운론의 제 문제, 진단학보 32
------ (1972), 개정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이상복 (1976), '-요'에 관한 연구, 연세 어문학 7,8, 연세대학교
------ (1984), 국어의 상대 존대법 연구, 배달말 9, 배달말 학회
이숭녕 (1956/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국어학연구선서 5, 탑출판사)
------ (1961/1980), 중세 국어 문법, 을유문화사
------ (1964), 경어연구, 진단학보 25,26,27, 진단학회
이익섭 (1974), 영동 방언의 경어법 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제 6집(인문사회편)
------ (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제 2집, 국어학회
이희승 (1971), (인문계 고등학교) 새문법, 일조각
임홍빈 (1976), 존대 겸양의 통사 절차에 대하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장석진 (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정인승 (1972), (인문계 고등학교) 표준문법, 계몽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성기 (1976),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최명옥 (1976), 현대 국어의 의문법 연구,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최현배 (1929, 열다섯번째 퍼냄 198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허 웅 (1954), 서기 15세기의 국어 존대법과 그 변천, 성균관대 논문집 1호
——— (1961), 15c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한글학회
——— (1962), 존대법의 문제를 다시 논함, 한글 130, 한글학회
——— (1963), 또다시 존대법의 문제를 논함, 한글 131, 한글학회
——— (1975), 우리 옛 말본, 샘문화사
현용준 (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현평효 (1962),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편), 정연사
——— (1974),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
——— (1977a), 제주도 방언의 '저·주'어미에 대하여, 박성의박사 학력 기념 논총
——— (1977b), 제주도 방언의 존대법, 국어국문학 74, 국어국문학회
———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현평효, 김홍식, 강근보 (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 논문집 제6집
홍종림 (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서울대)
황적륜 (1976a), 한국어 대우법의 사회언어학적 기술 : 그 형식화의 가능성 기술, 언어와 언어학 4, 한국외대
——— (1976b), 국어의 존대법,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On the Study of How to Treat with Respect for Listener in the Cheju-do Dialect

— Center on the Ending of 'Hoyo-form'

Ko, Chang-gu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ong-sik

In this paper, we have discussed how we should treat the listener through the 'Hoyo-form' in the Cheju-do dialect.

The ways of the listener-treatment in Cheju-do dialect have been classified into three forms; 'Hora-form', 'Hoyo-form' and 'Hopso-form'.

In this paper, however, we considered 'Hoyo-form' as an informal style, and have systematized the ways of the listener-treatment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Hora-form' and 'Hopso-form' in a formal style and the contrast between 'Hoyo-form' and 'Hoyomassum-form' in an informal style.

The major poi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1) Interrogative mood in 'Hora-form' is divided into yes-no question, wh-question and confirmative question through the vowel contrast among '-i', '-a'and '-e' in 'Hora-form' ending.

(2)'Hora-form'ending includes a disrespectful intention and it doesn't permit the contradition in the disrespectful intention and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november, 1992.

respectful intention. Therefore, we cannot it with an honorific particle, called 'massum'.

(3) It is impossible to unite 'massum' with 'Hopso-form' ending, but recently we narrates it frequently in the form of '-p chumassum' The reason is that '-chu', the 'Hora-form' morpheme, functions as a connection ending and can be united with 'massum'. We also think that ' -p ' may insert later. We can see the same narration in the 'habneggamassum' but not so often. .

(4) It is impossible to unite 'massum' with all 'Hoyo-form' endings, and these things called 'Hoyo-form' ending show us the narration ending form out of the connection ending and a later narration omission as an indirectly quoted interrogative sentence ending. It is possible to unite 'massum' with '-k'a' and '-k'o', the morpheme of doubt meaning conjecture, intentional expression and possibility.

(5) It is possible to unite 'massum' with '-ra' after a copula because this is a different form of '-o'- the connection ending in the medieval language. So it differs from '-ra' in the 'Hora-form'.

(6) '-chu' in the narration ending morpheme of the 'Hoyo-form' functions '-chi' in the standard language, and this comes from the connection ending '-dibi' in the medieval language.

Finally the division of how to treat the listener in the Cheju-do dialect can be systematized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Hora-form' and 'Hopso-form' in the formal style and the contrast between 'Hoyo-form' and 'Hoyomassum-form' in the informal styl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